

사랑사랑

제90호 (2002/6/22)



꿈꾸는
사람들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ian.net

 **인권을통한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나의 인권이야기

꿈꾸는 사람들, 2년에 즐음하여

이종현 (꿈꾸는 사람들 회원)

복적거렸던 1주년 기념모임의 일이 작년인 것을 보니 벌써 우리가 모인지 2년이 되었다. 그때 잘랐던 떡, 회원들 전부에게 기념 자료집을 돌린다고 200부 넘게 찍었던 일이 새록새록 기억난다. 그때 1년을 평가하면서 우린 스스로 뿌듯해 했었고 또 해보고 싶은 일과의욕이 넘쳤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는 우리는 생각만큼 모임을 잘 꾸려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무엇보다 1주년에는 자료집으로 손색없을 정도의 에세이를 서로 나눴지만 이번에 모아보니 간신히 한 달에 한 번꼴 이어서 그간 모임의 느슨함을 서로 반성하게 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자발적인 후원회원모임으로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모임으로 우리를 불러왔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모임이 몇몇 지인들의 모임으로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모임의 틀로 끌어올만한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 우리를 정체되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작년 사랑방 후원회원의 날인 사발나발을 계기로 회원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었고 대대적으로 홈페이지를 변경해서 후원회원, 지원활동가들이 만날 수 있는 터를 만들어보자는 실천 계획도 있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인권의 의제들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벌여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사랑방에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인권영화 상영회에 꿈꾸는 사람들이 스텝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 인권영화상영회는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영화를 상영하고 조촐하게 간담회를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제안되었고 사랑방이 주관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스텝이 되어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모쪼록 인권영화 상영회를 통해서 후원회원이나 사랑방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분들이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고 인권의 의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꿈꾸는 사람들은 그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낼 생각이다. 더불어 우리 모임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1년을 보내면서 기억나는 것을 꼽아보자면 첫째로 인권하루소식 2000호 기념행사를 들 수 있겠다. 어설픈 공연을 준비했던 것, 송년의 밤에 활동가들에게 드렸던 선물… 이런 것들이 꿈꾸는 사람들의 존재를 값지게 했던 것 같고 또 공연을 준비한다고 인권하루소식

이 2000호가 되도록 있었던 많은 숨은 얘기를 들었던 것이 너무 기분 좋은 기억이었다. 둘째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와 가졌던 간담회다. 인권하루소식 2000호의 머릿기사를 장식한 인물이기도 한 오태양씨는 국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이외에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였고 방문한 당시에는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사실 우리가 그에게 그리 큰 힘은 되지 못했겠지만 인권 문제에 가까이 접근하고 지지를 표명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

세번째로는 6회 인권영화제에서 열렸던 영국의 화가이자 인권활동가인 Dan Jones 아저씨의 인권그림전시회의 그림전시를 도맡았던 일이다. 물론 노가다성의 일이고 우리모임 전부라 기보다 몇몇이 굉장히 고생했지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공동작업을 몇주에 걸쳐 같이하게되면 자원활동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꿈사가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작년 1주년 때 우리모임을 평가하면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이 에세이를 구체화하고 심화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안된 대로 두 세차례 같은 주제로 에세이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제안도 좋지만 내실있고 부지런히 에세이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신혜의 재활용, 은관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에세이를 통해 나누었던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어느새 소중한 판단 근거와 행동지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대중들 사이에 회자되는 세론과 몸에 익어버린 습속의 보수성과 싸우는 일,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삶과 에세이가 가지는 실천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나눌 많은 꿈꾸는 사람들을 우리 모임에 초청한다.

꼼따카툰

이동수

*꼼따란 '꼼꼼히 따지며 살자'의 준말이에요^^..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원회, 그 못다한 이야기들...

‘법용’ 이 인권하루소식 기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국가인권위 스스로가 져버렸다. 인권하루소식은 6월 20일자에 1면을 전면 할애해, 성명서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을 보며〉를 전격 게재했다. 성명서 외에 인권단체의 공개질의와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 자료실에 올려져 있다.

사실 인권운동사랑방은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갈망했으나, 그토록 갈망했던 국가인권위와의 관계가 빼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국가인권위가 설립되는 과정 때문이었다. 당시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의 비민주성과 오만,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절규를 담아냈다.

지난해 8월 24일자 기사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8월 25일자 기사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 속에 출범 희망〉, 8월 30일 별지 〈서준식 대표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10월 5일자 기사 〈“밀실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10월 10일자 기사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집회〉, 그리고 11월 24일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그 누구보다도 외면한 것은 바로 국가인권위였다. 그리고 일부 인권단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배제한 채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6일 출범했고, 이후 김창국 위원장과 최영애 사무총장 체제로 틀을 갖추어 나갔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마음놓고 축복할 수 없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가 법무부 등 온갖 부처들로부터 극심한 견제를 받을 때조차 마음놓고 국가인권위를 지지할 수 없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설립과정의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인권단체들과 함께 정부부처들에 맞서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의 순진한 지지는 국가인권위의 오만함에 백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소수자들과 민중들에게는 그래도 국가인권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낫다고 판단하였던 바,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의 과거 허물에 대해서는 이후 발언을 자제했다. 다만 인권하루소식은 그러한 자제 속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안에 대해서는 간간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 11일자 기자의 눈 〈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올해 3월 9일자 논평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3월 16일자 기사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

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4월 22일 인권이야기 <누가 국가인권위를 흔드는가?>, 4월 16일자 기사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같은날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인권운동 사랑방은 몇몇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계기로 그 동안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가졌던 아쉬움을 솔직히 드러내고 국가인권위에 잘못했던 과거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이를 바 ‘국가인권위의 과거청산’ 문제였다.

인권하루소식은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5월 1일자 기사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에 이어 5월 23일자 기사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질의/ 설립과정 및 운영의 민주성, 진정처리의 기준과 원칙 낱낱이>에 담아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자신과 관련된 과거청산의 문제를 진정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일이 지나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답변서는 글자그대로 “관료주의적 자기합리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권하루소식은 이례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을 그대로 6월 20일자 1면 전면에 ‘바른’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의문사진상규명의 문제와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문제 등을 다루면서,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임을 빼저리게 느껴왔다. 그리고 과거청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과거를 청산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박약하거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국가인권위의 과거청산 문제도 마찬가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심한 배신감에 빠져 ‘협력거부’라는 비장한 선언을 하게 된 데는 ‘과거를 청산하려는 국가인권위의 의지가 박약하거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알림

구슬도 뛰어야 보배다!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1993년 8월 4일 준비 1호를 시작으로 지령 2000호를 넘어 달리고 있습니다.

9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해 온 인권하루소식은 1년에 두 번 합본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과거 기사를 합본호를 통해서만 찾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입력 프로그램 설계가 끝났고 자료필드에 인권하루소식을 입력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파일형태로 되어 있지만, 8만 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기사인지라 여러분의 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문의>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김영원(foreverk@origio.net) 전화 02-741-5363

사/업/보/고

(2002년 5월 넷째 주 - 6월 셋째 주)

인권교육실

1. 아동권 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자료수집과 번역 등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오는 10월 9일에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분과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그 자리에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교육실은 10월까지 보고서를 수정하고 요약본을 만들 계획입니다.

2. 어린이 인권캠프 준비 박차

어린이 인권캠프가 어느덧 4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8월 5-7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 청운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예년보다 인원을 약간 늘려 40명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어린이 인권캠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인권교육연구모임이 힘쓰고 있습니다.

3. 그림전시회

단 존스씨의 두차례 전시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의 요청으로 전주에서 한차례 전시회를 더 가진 후 그림을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혹 조만간 런던 쪽으로 여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림 운반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청소년노동 보고서 마무리 중

50여명의 청소년을 면담하여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정리 중입니다. 애초

5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면담자가 더 늘어나고 다른 일정이 많아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5. 여름방학 실습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여름방학 실습생을 받습니다. 사회복지, 사회사업 전공 실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고, 주된 실습 내용은 어린이인권캠프 준비입니다.

인권정보자료실

1.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 시범운영 중

인권정보자료실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www.sarangbang.or.kr/main/kr-frame.html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클릭! 인권정보자료"가 신설되어 매주 신작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꾸러미를 "유엔과 인권 꾸러미"로 변경하여 전보다 유엔과 인권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꾸러미에는 △국제 주요 인권조약 및 이행감시기구 △유엔 청원절차 △유엔 인권기구 △유엔 전문기구 △유엔 주요 인권회의 △유엔 인권관련 용어 인덱스(INDEX) 등의 해설과 조약원문, 주소록이 실려 있습니다. "판매용 자료집 및 단행본"에는 2000/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목록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한 자료집과 단행본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

신 정보를 마음껏 내려 받으세요. 이 작업에는 자원활동가 이정원 씨, 꿈사 이민정 씨, 후원회원 이진아 씨가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2. <인권하루소식> db 프로그램 설계 마무리

인권하루소식 db 입력 프로그램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인권하루소식 db구축·cd 제작팀은 db 입력 프로그램 시현(presentation)을 갖고, 마무리 작업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본격적인 자료 입력입니다. 자료입력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3. 2002년 여름학기 사회봉사 시작

2002년 1학기동안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했던 김화술 씨 등 4명이 6월 7일자로 사회봉사 활동을 끝냈습니다. 2002년 여름학기에도 김정은 씨 등 3명이 사회봉사 수업으로 인권정보자료실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합니다. 영문자료 입력과 수정, 자료수집 업무를 맡아서 총 26시간을 활동할 예정입니다.

4. 자료실에서 자료입력과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기증 받습니다.

예고한대로 모두 35편의 작품을 아무런 상영사고 없이 상영했습니다. 10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작품을 만든 감독들이 직접 참여해 관객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특히 <먼지, 사북을 묻다>의 주인공인 이원갑 씨를 비롯해 사북 탄광파업의 참여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상영이 끝난 후 무대에 올라 관객과 인사를 나누며 묻혀져 있던 80년 사북의 진실을 조심스럽게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가장 큰 관객의 관심을 모았던 작품 중 하나였으며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심사평은 80년 사북 탄광 파업의 진상을 밝힌 최초의 다큐멘터리라고 규정하며 "당시 사북탄광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그에 대한 항쟁의 성격을 조명함으로써 과거 "불순분자의 사주를 받은" "광부들의 집단 난동"으로 일반에게 인식되었던 '사북항쟁'이 정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획기를 그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공적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만 했던 광부들의 운동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듯 합니다.

외국작품에 보인 관객들의 관심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사진작가> <서던 컴포트> <아티카의 유령들>이 특히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던 작품인데요. 좌석수가 적은 아트큐브의 경우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 치열한 자리경쟁이 있었고 적지 않은 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월드컵의 첫 한국전이었던 4일 저녁시간에도 많은 관객이 들뜬 분위기와 아랑곳없이 차분히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을 보고 실무를 맡은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기조차 했습니다.

개, 폐막식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에바다 학교의 교사이신 권오일 선생님과 평화인권

인권영화제

지난 6월 5일 제6회 인권영화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월드컵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짓눌리지 않고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체 집계한 관객 수는 7일 동안 2개 극장에서 약 5천 6백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연대의 최정민 씨가 개막식의 사회를 맡아 주셨고 폐막식은 동성애 전문지인 버디의 편집장 한채윤 씨가 수고해 주셔서 인권영화제가 '인권 운동'의 명실 상부한 행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영화제를 돋고 있는 (영화인들 중에서 개막식 사회자를 섭외 하느라 애를 쓴) 한 영화계 관계자는 영화인들이 참여하지 않아 섭섭하지만 인권운동관의 아마추어리즘을 즐기게 한 흥겨운 행사였다고 즐거워했습니다.

관객들 중에는 모든 상영작을 다 보겠다는 의지로 영화제 기간 내내 출근 도장을 찍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노동자의 벗인 가수 최도은 씨, 수업을 빼고(수업을 빼먹고) 심심지 않게 영화제에 찾아온 고등학생 김군, 친구 따라 영화제 왔다가 작품이 좋아서 매일 오게된 두 여성 관객 등 10여분의 얼굴이 상영장과 함께 떠오릅니다. 해를 더해 갈수록 인권영화제를 '익히 알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더욱 보람 있었던 영화제였습니다.

현재까지 배급 여부가 확실한 작품은 〈9. 11〉 한 편입니다. 미처 영화제에 오지 못해 작품을 다시 볼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요즘도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배급권을 확보하는 일이 돈과 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국내 배급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작품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7월 이후부터 사랑방으로 오시면 모니터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소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5월 1일 사랑방과 같은 건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5층에는 연구원들의 아담한 공부방

이 꾸며졌고, 4층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진보인권이론'(월) 세미나는 5월 20일부터 지난 학습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원들의 소논문 발표 형식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종적 민족주의, 여성과 노동권, 이주노동자의 인권, 평화에 대한 권리 등이 발표 주제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 세미나는 세미나 참가자 이외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일정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관심있는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주의인권론'(수) 세미나에서는 이제 중국을 거쳐 북한의 인권을 보는 시각과 법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공식적 입장,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인권문제들, 북한의 주요 법제도 등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국제관계론'(금) 세미나에서는 지역별 정치·경제적 상황과 역사, 국제관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동과 라틴아메리카를 거쳐, 이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가 세미나 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는 김용현 님(사회진보연대, 사회학과 대학원 재학 중)을 모시고 '이슬람의 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용현 님은 중동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이슬람의 기본 이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동문제에 접근해 들어가야 서구적 보편주의가 가진 편협한 시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동지역의 분쟁과 고난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동학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중동지역 민중들이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에 호소하고 자살테러까지 불사하는 것은 다른 대안들

(사회주의 실험, 종속적 국가 발전프로젝트)의 실패와 세계체제로부터의 배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반전평화운동을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국제적 저항운동(반미운동)을 펼치는 것이 야말로 현시기 요구되는 중요한 실천적 투쟁이라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으로 인한 끊임없는 희생이 야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귀기울일 볼 만한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김용현 님의 특강 자료를 비롯하여 연구소의 세미나 관련 자료나 진행 상황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잇따랐습니다. 거기다 파업주도자도 아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까지 월급을 가입류하고, 회사내에서 노조의 홈페이지 접속을 못 하도록 하는 등, 각각의 억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정부의 드라이브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영화반대”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회사가 몸서리치도록 호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권단체들은 6월말까지 조사결과를 정리한 뒤, 이를 외부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사랑방에서는 고근예씨와 이창조씨가 조사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기획사업팀

1. 청평으로… 삼천포로… 발전노조 인권 탄압실태 조사

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 발전산업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인권침해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은 12개 인권단체들과 함께 ‘발전노조 인권 실태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5월 23일 청평양수발전처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 삼천포화력발전처 등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 회사측은 노골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기보다, 법적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도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 및 파업참가’에 대한 부담과 자괴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불법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개별적 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해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2. 공소시효 배제운동 중간평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이 결국 중앙정보부에 의한 타살로 판명됐으나, 여전히 공소시효의 경과라는 제도적 벽에 부딪혀 관련자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랑방이 소속된 ‘공소시효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선거로 인해 국회가 휴지상태에 들어간 관계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의 입법을 위한 대국회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한 달이었습니다. 사랑방이 포함된 ‘공소시효협의체’는 조만간 상반기 동안의 공소시효배제입법화 운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으며, 하반기 입법투쟁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6월 11일 협의체 소속 단체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공소시효배제입법을 위한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의견개진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김창국 위원장은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랑/방/소/식

(2002년 5월 넷째 주 - 6월 셋째 주)

1. Dan Jones씨와의 열흘

인권 그림 전시회를 계기로 방한한 단 존스씨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1-2시까지 전시회 준비를 같이 했고,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어린이와 함께 하는 그림 워크샵을 하느라 술 틈이 없었습니다. 일벌레들끼리 만나서인지 새벽까지 이어지는 일정에도 단 존스씨는 피곤한 기색 없이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은 단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허전한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역과 그림 운반, 잠자리 제공 등으로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일본 인권단체 방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설립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5월 25일, 일본의 인권단체들이 사랑방을 방문했습니다. 사랑방은 4년여의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조언을 했고, 일본 인권단체들은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인권영화제 포스터를 방문기념으로 선물했습니다.

3. 인권영화제

월드컵과 맞짱을 뜯은 인권영화제, 월드컵 개막식과 한국전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이 많은 관객들이 찾아 주셔서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후원과 자원활동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국가인권위에 협력 거부 선언

장시간의 고심 끝에 현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출범 과정에서부터 국가인권위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정부 부처의 압력에 둘러싸인 국가인권위의 처지를 생각하여 자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궤도이탈의 수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월 19일에 발표한 사랑방의 성명은 권력과 재력으로 인권단체들을 굴복시키려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비장한 선전포고입니다. 사랑방의 성명과 그에 앞서 국가인권위에 보낸 질의서와 국가인권위의 답변서는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제4회 어린이 인권 캠프

- 대상 : 4-6학년(선착순 40명)
- 기간 : 8월 5일 - 7일
(2박3일)
- 장소 : 경기도 양평
(청운 인성수련원)
- 회비 : 7만원
- 문의 : 김영원 · 김보영
02-741-5363

2002년 5월 회계 보고

(2002년 5월 17일 - 2002년 6월 16일)

| 이월금 : | 1,442,798 원 | | |
|---------------|--------------------|-------------|-------------------|
| 수 입 | | 지 출 | |
| ■ 사업수익 | 2,963,805원 | ■ 사업비 | 892,480원 |
| - 하루소식 | 1,998,505원 | - 하루소식 우편발송 | 230,160원 |
| 구독료 | 1,663,660 | - 자료실 | 38,110원 |
| 기사배급 | 334,845 | - 감옥인권팀 | 20,100원 |
| - 간행물 판매 | 264,000원 | - 기획사업팀 | 1,380원 |
| 깨어나일어나 | 15권 | - 교육실 그림전시회 | 284,550원 |
| 인간답게살권리 | 4권 | - 사람사랑 제작발송 | 171,590원 |
| 감옥의현실 | 2권 | - 희망발송비 | 21,90원 |
| 아이들의권리, 세계의약속 | 2권 | - 연대사업비 | 100,000원 |
| 인권교육길잡이 | 3권 | - 출장비 | 44,400원 |
| 불심검문 자료집 | 3권 | ■ 자료실 책장구입 | 720,000원 |
| 합본호 판매 | 1권 | ■ 활동비 | 3,500,000원 |
| - 감옥법령자료집 | 34,000원 | ■ 사무실유지비 | 1,023,080원 |
| - 자료제공 | 84,600원 | ■ 통신비 | 995,150원 |
| - 강연료 | 582,700원 | ■ 사무비품 | 416,080원 |
| ■ 후원금 | 5,091,640원 | ■ 사무국 식비 | 345,830원 |
| 정기후원 | 4991,640 | ■ 생활비 | 130,220원 |
| 특별후원 | 100,000 | ■ 기타 | 20,170원 |
| ■ 재정사업 | 362,000원 | | |
| <희망>비디오판매 | 18 개 | | |
| ■ 은행이자 | 4,220원 | | |
| ■ 기타 | 36,500원 | | |
| 총수입: | 8,458,165원 | 총지출: | 8,043,010원 |
| 잔액: | 1,857,953 원 | | |

특별 사업기금 4,775,170 원

〈2002년 5월 재정 세부내역〉

- [REDACTED] 등이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 자부공간이 들어난 만큼 사무실 유지비도 들었습니다.
- 주한미군이 설치한 고압선에 희생된 고 전동록씨 장례기금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주모제에 연대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 인권정보자료실에 놓을 책장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쌓여 있는 책 무더기가 아니라 쉽게 찾을 수 있는 책장에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5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6/17일(지로는 6/15)까지

